

2018년 추계 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움

금융그룹 전이위험의 측정 및 관리 방안 (토론)

시장정책연구부 이기영

Oct. 17,
2018

Korea's Leading Think Tank



-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부실 전이 위험을 이론적으로 고찰
 - 금융 계열사 간의 그룹화가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
 - 각 계열사의 자기자본 수준 및 부실위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전이위험이 결정.
 -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계열사에 전이 위험이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.
 - 계열사에 차별적으로 노출된 전이 위험을 고려한 자기자본 규제를 수립할 필요

- 금융 네트워크 연구 문헌을 참고하여 전이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 제시
 - 금융시장 충격의 규모 및 네트워크의 조밀성에 따라 전이 위험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함.
 - 그룹 내 전이 위험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필요
 - 각 계열사의 부실 전이 위험 및 전이위험 취약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 소개
 - 전이 위험에 강하게 노출된 계열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

- 그룹 내 전이 위험에 있어 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
 - 전이위험은 금융계열사가 타 계열사와 직접적인 거래·지배관계를 맺지 않아도 나타남.
 - 동양증권 사태: 동양그룹 내 계열사의 CP 불완전 판매에서 촉발
 - 전이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제 외에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
 - 대표회사에 그룹위험 관리 책임 부여, 계열구조 수직화, 의결 과정 투명화 등
 -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각종 금융거래를 상시 모니터링

- 비금융계열사로부터 발생하는 전이 위험을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
 - 비금융계열사는 금융감독기관이 부실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 - 따라서 이들 계열사로부터 발생하는 전이 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
 - 바젤 III 규제: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은행 자기자본에서 전액 삭감
 - 그룹 계열구조의 개선 및 감독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.
 - 이기영(2017):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배에 높은 규제준수 비용 부과
 - Freixas et al. (2007): 전이 위험 관리가 수월한 계열사로 고위험 자산이 이동됨.

Korea's Leading Think Tank



KDI KDI KDI KDI
KDI KDI KDI KDI
KDI KDI KDI KDI

